

## 로신잡문의 예술적특징

최 충 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고리끼와 로신의 작품들이 광범한 인민들을 혁명투쟁으로 불러 일으키는 작용을 할수 있는것은 그 작품들이 착취사회의 계급적모순을 예리하게 폭로하고 인민들의 지향을 진실하게 형상하였기때문입니다.》(《김일성전집》 제44권 234페이지)

로신(1881—1936)은 중국현대문학을 개척하고 프로레타리아혁명문학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중국의 이름있는 작가이다.

로신은 1919년 5.4운동시기 중국문학사에서 처음으로 백화문(입말체)소설인 단편소설 《미친사람의 일기》를 창작함으로써 중국현대소설문학이 백화문소설창작에로 이행하게 하는데서 선구자적역할을 하였다.

특히 그는 잡문이라는 산문문학양식을 처음으로 창조하여 활용함으로써 중국현대문학유산을 풍부히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중국현대문학에서 잡문이라는 문학형식은 작가 로신이 1918년에 처음으로 잡지 《신청년》의 《수감록》란에 글을 발표한 때로부터 생겨났다.

잡문이란 사상, 문화분야에서 온갖 반동적이며 부패한 현상들을 신랄하고 예리한 풍자로써 폭로비판하는 짧은 형식의 산문을 말한다.

로신이 창작활동을 벌리던 20세기 20~30년대는 중국공산당의 창건과 함께 중국혁명의 새로운 시대가 펼쳐진 격동적인 시기였으며 날로 강화되는 노동운동과 혁명세력에 대한 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들의 탄압이 전례없이 악랄해지던 시기였다.

적들의 도전과 탄압에 시기적으로, 즉시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로신은 짤막한 형식의 잡문을 자기의 무기로 삼고 굴함없는 투쟁을 벌렸다.

내용적측면에서 볼 때 잡문은 제국주의자들의 중국침략과 장개석도당의 죄행을 폭로단죄하는 문제로부터 중국인민들속에서 고질화된 봉건사상과 문화, 낡은 인습과 도덕관념 등을 비판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를 담고있다.

로신은 문학창작생애의 전기간 내용이 풍부하고 전투성이 강한 70여권의 잡문집을 출판하여 내놓았다.

로신잡문이 커다란 위력을 나타낼수 있는것은 잡문의 높은 사상적내용에도 있지만 로신의 재치있는 예술적기교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로신의 잡문의 예술적특징에서 주목되는것은 첫째로, 부정인물에 대한 전형적형상화이다.

부정인물에 대한 전형적형상을 창조한것은 로신잡문이 성과를 거둘수 있게 한 중요한 요인의 하나였다.

로신의 잡문은 허공에 뜬 추상적인 설교를 하는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구체적인 형상을 통하여 그속에 내포하고있는 정치적의의를 리해하고 그에 공감하게 하며 그들의 지혜를 계발시키고 각성시켜 원쑤들의 진면모를 꿰뚫어보고 그것을 타매하게 한다.

로신은 잡문 《우리는 다시 속지 않는다》(《남강북조집》)에서 제국주의를 《입에는 꿀을 바르고 배에는 칼을 품고서 진보적인것을 적대시하고 진리를 멸시하며 인민을 기만하고 더러운것을 보배라고 하면서 달콤한 말을 뱉아내고 공정한듯 한 물골을 짓고 악마의 눈물을 흘리며 공산주의를 멸망시키고서야 발편잠을 잘수 있다고 뇌까리는 놈》이라고 형상하였다.

또한 잡문 《〈우방인사의 놀람〉을 론함》에서는 《글이나 읽어라, 글이나 읽어, …》라는 몇마디의 말로 인민들을 기만하고 그들의 투

쟁의식을 마비시키려는 남경반동정부의 추악한 물골을 드러내보였다.

로신의 잡문에서 부정인물에 대한 형상 묘사는 전형성을 띠고있다. 로신이 직접 묘사한것은 개별적인물이었으나 그것을 개괄하면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같은 부류의 인간들로 되었다.

로신은 혁명문학을 말살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날뛰는 진서형, 소문과 같은 봉건계급과 부르쥬아, 제국주의의 주구문인들을 잡문 《여름의 세 곤충》에서는 《사람의 피를 빨아먹으면서도 그전에 앵앵하고 론의를 벌리는 모기》로, 잡문 《파리와 영웅》에서는 《한나절이나 뽕뽕대다가 내려앉아 기름과 땀을 핥아먹고나서는 뽕을 살짝 싸놓는 파리》로, 잡문 《정정당당한 경쟁은 천천히 하여야 한다》를 론함》에서는 《절충적이고도 타당하며 타협적이고도 산뜻한 자태가 흘러넘치는 삽살개》로 묘사하였다.

로신이 그려낸것은 곤충이나 동물이었지만 그안에는 일부 어용학자나 주구문인들의 성격과 외모가 체현되어있었다. 이런 부류의 인간들은 별수없이 화려한 옷과 거짓가면을 벗기우고 로신의 글에 직접 등장하게 되었으며 로신은 그들의 코를 꺾서 대중앞에 세우고 이자들이 바로 혁명의 원쑤, 쓰레기들이라고 비판하였다.

로신은 잡문 《〈초상난 집〉, 〈자본가의 무능한 주구〉》와 《정정당당한 경쟁은 천천히 하여야 한다》를 론함》에서 제국주의어용문인들을 여러가지 개로 묘사하였다.

제국주의상전의 품에서 교태를 부리는 《충애받는 삽살개》가 있었는가 하면 무턱대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왕! 왕!》하고 짖어대는 《비루먹은 삽살개》도 있었고 상전의 버림을 받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상가집의 무능력한 삽살개》도 있었다.

로신은 《무능력하다》는 묘한 말을 덧붙여 굶주리고 여위여 가공하기 그지없는 주구문인들의 물골과 정신적인 방황속에서 허

덕이는 그들의 비참상을 생동하게 그려냈다.

로신잡문의 예술적특징에서 주목되는것은 둘째로, 신랄한 풍자의 수법을 활용한것이다.

로신은 잡문 《풍자에서부터 유모아에로》에서 풍자를 쓰게 된 원인에 대하여 《...〈문자옥〉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상대를 거꾸러뜨리는 독한 술법이 아니면 가슴속에 남아있는 답답한 기운을 짱그리 털어버릴수가 없어 웃음이라는 간판을 걸고 시원하게 토로하는 것이다. 웃기여 웃는것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는것도 아니고 또 현재의 법률에도 국민은 반드시 우거지상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것도 아니니 그것이 비법이 아니라는것을 감히단언하는바이다.》라고 하였다.

로신은 풍자가 자기의 고유한 즐거움과 웃음, 분노와 욕설로 반동계층의 본성과 추악한 면모를 그려냄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적들의 몸뚱아리에 채찍질을 하는 후련한 감을 느끼게 한다고 하였다.

로신의 모든 창작은 현실생활이라는 토양에 깊이 뿌리박고있으며 그것은 그가 창작에서 풍자기교를 충분히 리용할수 있게 하였다.

로신은 잡문 《〈풍자〉란 무엇인가?》에서 《풍자의 생명은 진실성이다. 그것은 꼭 있었던 일이여야 하는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있을수 있는것이여야 한다.》고 하면서 《사실을 쓰지 않은것은 풍자로 될수 없다. 사실을 쓰지 않은 풍자는 설사 그러한것이 있다해도 요언과 증상으로 될 따름이다.》고 주장하였다.

로신은 잡문 《가정은 중국의 기본》에서 중국사람들에 대한 봉건가정의 속박과 해독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풍자하고있다.

《중국사람들은 집에 누워서 〈구름을 삼키고 안개를 토하듯〉 아편을 빨아대며 밤이 새도록 마장을 놀아댄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집에서부터 끌어내어 교육을 주다 말썽

이 생기면 <가장에게 맡겨 엄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떠든다. 사람이 죽어 귀신이 되면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가 살던 집을 불태워 귀신이 들어가 살게 하고 죽어 신선이 되면 집을 통채로 떠이고 하늘로 날아오르게 한다. 남들이 비행기로 폭탄을 쏘아부어도 우리는 단지 집에 틀고앉아 그것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수밖에 없다.

…보다실이 집은 우리의 삶의 터전인 동시에 우리의 무덤이기도 하다.》

로신이 가부장적가정관념이 빚어낸 각종 폐단들을 생동하고 신랄하게 풍자비판한 정도는 직접적인 비판보다 훨씬 날카롭고 힘 있으며 그 효과도 비할바없이 뚜렷하다.

잡문 《분에 못이겨 죽는다》에서는 돈이 있는자는 닥치는대로 오입질과 도박을 하고 돈이 없는자는 술을 몇사발씩 들이키며 불평을 부리다가 마침내 분에 못이겨 죽는데 만일 그들에게 《베이징이 곤륜산에서 몇리나 떨어져있으며 약수가 황하에 이르려면 얼마나 흘러가야 하는가를 아시는지? 화약은 폭죽을 만드는 외에 그리고 라침판은 방향을 보는 외에 또 무엇에 쓰이는지를 아시는지? 면화는 붉은지 흰지? 조가 나무에 열리는지 풀에 열리는지?》를 물어보면 그들은 대답을 못하며 나중에 또 분에 못이겨 죽고만다고 풍자하면서 그들은 사실상 결코 분에 못이겨 죽은것이 아니라고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었다.

로신은 잡문 <<제길 할!>을 론함>(《무덤》), 《양춘인선생의 공개편지에 대한 공개편지》(《남강북조집》), <<초상난 집>, <자본가의 무능한 주구>(《이심집》) 등에서도 야유와 조소, 풍자와 폭로의 언어묘사로 적들에 대한 경멸과 증오의 감정을 토로하였으며 거기서 울려나오는 통쾌한 웃음소리는 적들에게는 심대한 타격을, 혁명적인민들에게는 통쾌감과 승리에 대한 신심을 안겨주었다.

로신잡문의 예술적특징에서 주목되는것은 셋째로, 반어의 활용이다.

로신은 잡문 《두곳의 글》에서 《론쟁할 때마다 반어를 써서 리유를 불문하고 강타를 안기군 했다.》고 썼다. 그는 당시의 현상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전면에서 부정하고 비판한것이 아니라 에두름법과 반어로써 폭로비판하였다.

로신이 잡문창작에서 반어를 많이 사용한것은 사상문화분야에 대한 적들의 탄압이 날로 강화되는 백색테로구역에서 글을 써내는 조건에 대처하여 부득불 취하지 않을수 없었던 전술적선택이었다.

잡문 《수감록 39》에서 낱아빠진 중국의 《정통문화》와 국수를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복고주의자들에 대하여 로신은 《국수주의자들에게는 옛날부터 그랬던것이라면 그것은 곧 보배로 된다. 설사 알지 못할 고름집이라 해도 만일 그것이 중국사람의 몸우에 생긴다면 벌겋게 부어오른 곳은 복숭아꽃처럼 울긋불긋하다고, 고름집이 터질 때에는 치즈처럼 아름답다고 한다. 국수란 정말 묘하기 그지없다.》라고 썼다. 이 반어표현들은 복고주의자들을 울려추어주며 표면상으로는 칭찬하나 실제로는 풍자하고 공격하여 글의 형상성을 높이고 독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다.

잡문 《류화진군을 기념하여》에서는 청원운동에 나선 녀학생들에게 사격을 가한 단기서반동군벌정부의 죄행을 단죄하여 《세 너자가 문명인들이 발명한 총탄의 집중사격속에서 침착하게 거닐 때 이것은 얼마나 조마조마한 <위대함>인가. 중국군인들이 부녀자와 아이를 도살한 <위대한 업적>, 학생들을 징벌한 8개국연합군의 <무공>은 불행하게도 이곳의 피자육에 의해 말살되었다.》라고 하였다. 제 얼굴이 중국인민의 피자육으로 얼룩진것도 모르고 <위대한 업적>과 <무공>을 쌓은 승리자로 우쭐거리는 후안무치하고 비열하며 가소롭기 그지없는 반동군벌당국에 대한 절규와 놈들의 만행에 대한 폭로와 경멸, 정의를 위하여 탄우속으로 당당히 맞

받아나가다 쓰러진 세 너인의 영웅적행동에 대한 찬양과 애석함은 반어의 수법에 의하여 더욱 뚜렷이 부각되고있다.

잡문 《프로쓰끼파에게 주는 회답편지》에서는 《당신들의 〈리론〉은 확실히 모택동선생의 리론보다 훨씬 〈고상〉하다. 비단 〈고상〉할뿐아니라 그야말로 하늘땅차이가 있다. 〈고상〉한것은 물론 〈존경〉할만 한것이나 그 〈고상함〉이 공교롭게도 일본침략자들의 환영을 받고있으니 그 〈고상함〉은 하늘에서 떨어져 땅위의 가장 더러운 곳에 처박히게 될것이다.》라고 하였으며 잡문 《〈우방인사의 놀람〉을 론함》의 마감부분에서는 국민당반동정부의 《우방인사》들인 제국주의자들의 죄행에 대하여 《그러니 〈우방인사〉들은 이제부터 〈당황망조할〉 필요도 없이 마음놓고 와서 넓은 중국땅덩어리를 갈라먹으면 될것이다.》라고 격분에 넘쳐 단죄하였다.

이처럼 로신은 잡문에서 반어를 재치있게 활용함으로써 끝없는 탐욕에 빠져 몰락의 길로 줄달음치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통치배들의 죄행을 예리하게 폭로비판하고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로신은 일생에 6백여편에 총 백만여자의 잡문을 썼다.

그의 잡문은 그 형상수법과 형식, 내용

에서 다양하고 이채롭다. 어떤 글에서는 시대의 폐단을 폭로하여 대중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을 각성시켰으며 어떤 글은 옛것에 비추어 현실을 론함으로써 사람들의 깊은 사색을 자아냈다. 또한 사랑과 우정의 감정을 토로한것도 있고 이글거리며 타번지는 증오와 분노의 불길을 피력한 글도 있다. 어떤 글은 에두름법으로 그 의미를 사람들이 음미하게 했고 또 어떤 글은 통속적으로 명백하게 문제의 본질을 밝히기도 했다.

로신의 잡문에서는 일련의 제한성도 나타나고있다.

그것은 우선 작가가 당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지 못한것으로 하여 잡문창작에서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일부 잡문들에서 지나치게 함축된 어휘를 쓰고 에둘러 표현한것으로 하여 잡문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결함들도 나타나고있다.

그러나 로신의 잡문은 혁명적성격과 예술적성파로 하여 인민들에게는 투쟁의 의지와 생활의 열망을 북돋아주었고 적들에게는 서슬푸른 비수가 되어 그들의 간담을 서늘케 한것으로 하여 중국신문학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